

## 4월 베트남 경제 및 관광 시장 동향

### □ [베트남 정치경제 동향]

#### ○ 베트남 정치국, 북부 광닌성 '중앙직할시' 승격안 승인

- 베트남 북부 핵심 경제 지역인 광닌성이 중앙직할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역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관련 결의안을 바탕으로 연내 국회 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행정 경계를 유지한 채 스마트·친환경 도시 모델로 전환하는 발전 전략을 제시했음.
- 광닌성은 도시·해양·국경·유산을 통합한 다중심 개발 구조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녹색경제, 해양경제, 관광 및 문화 산업 등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임. 이를 위해 광역 교통망과 스마트 인프라 확충이 병행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승격 추진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등 양호한 지표에 기반하고 있음. 특히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며, 대규모 관광객 유입과 매출 성장이 두드러진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음.
- 광닌성의 직할시 승격은 북부 경제권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향후 인프라 투자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통해 베트남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 베트남-싱가포르, 양국 합작투자 공단 연내 30곳까지 확충 추진

-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산업단지 협력 모델인 VSIP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음. 양국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산업단지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 중심에서 첨단 기술과 친환경 요소를 결합한 스마트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양국은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를 추가 확대해 연내 총 30개 수준으로 늘리

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특히 베트남은 차세대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고부가가치 기술 이전과 혁신 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협력 범위 또한 제조업을 넘어 에너지 및 환경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해상풍력 기반 전력 수출, 저탄소 협력,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이 논의되며 양국 간 지속가능 성장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모습임.
- 전반적으로 VSIP 확대는 베트남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내 위상 강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스마트 제조 및 친환경 투자 유입이 확대되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 베트남 총리 “경상지출, 10% 절감” 지시…우선순위 사업 투자 확대

- 베트남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장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경상지출의 최소 10% 절감을 지시했음.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해 확보된 재원을 핵심 국가 과제와 경제 성장 분야에 재투입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됨.
- 정부는 물품 구매, 회의·출장비 등 운영성 경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절감 목표를 제시하며 강도 높은 긴축 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사용 절감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비용 통제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긴축을 넘어 자원 재배치를 통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 성장, 디지털 전환, 생산성 향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성장 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아울러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프로젝트 병목 해소에도 집중할 계획임. 전반적으로 베트남은 재정 효율화와 구조 개혁을 병행하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UOB 베트남에 에너지안보 경고

- 베트남이 향후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

정과 공급망 관리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자재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에 부담을 주고, 동시에 인플레이션 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실제로 연료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외부 변수에 따른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비축유 확대, 유가안정기금 활용, 유류세 감면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단기적 가격 안정에 나서고 있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원유 저장 시설 확충과 에너지 공급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베트남 경제는 에너지 수급 안정 여부에 따라 성장과 물가 간 균형 유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큼. 향후 안정적인 연료 공급과 가격 관리가 고성장 목표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 [베트남 관광 동향]

### ○ 베트남 썬푸꾸옥항공, ‘인천-푸꾸옥’ 신규 취항

- 베트남 신생 항공사 썬푸꾸옥항공이 인천-푸꾸옥 정기 노선을 신규 취항하며 동북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음. 해당 노선은 향후 증편이 계획된 핵심 전략 노선으로, 푸꾸옥을 중심으로 한 국제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 특히 항공 서비스에 호텔 체크인 및 전용 라운지 이용을 결합한 차별화 전략이 주목됨. 공항 절차를 호텔에서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여행 전반의 경험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는 단순 항공 운송을 넘어 관광·레저 산업과 결합한 수익 모델 다변화 시도로 평가됨.

- 이번 노선 취항은 한-베 간 관광 및 인적 교류 확대와 함께 푸꾸옥의 국제 관광 허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동시에 항공과 관광을 결합한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며 베트남 항공 산업의 고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 베트남, 1분기 외국인 관광객 670만여 명 12%↑ ‘역대 최고’

- 2026년 들어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관광 산업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월간 방문객 수가 4개월 연속 200만 명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했음.
- 관광객 유입 구조를 보면 중국과 한국이 핵심 시장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남아 및 유럽, 미주 지역까지 방문객 증가가 확산되는 등 베트남 관광 시장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 같은 성과는 정치적 안정성, 완화된 비자 정책, 가격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국제 유가 상승과 항공 노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가성비 높은 여행지’로 인식되며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베트남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항공료 상승과 환율 부담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가 관광 산업 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향후 항공비용과 글로벌 경제 여건이 수요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전망됨.

#### ○ 베트남 호치민시 떼선녓공항, 외국인 입국 전 ‘사전신고’ 의무화

- 베트남 호치민 떼선녓 국제공항이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신고제를 도입하며 입국 절차 디지털화를 본격화했음. 이번 조치는 공항 혼잡 완화와 입국 심사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특히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개선 방안으로 해석됨.
- 해당 제도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발 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입국 심사 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사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이번 정책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항 운영 효율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입국 심사 병목 현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여행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반적으로 베트남은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공항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 개선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공항으로 해당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이는 관광 경쟁력 강화와 국제 이동 편의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 [기타 지사의견]

- 3월까지 베트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는 약 67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하였음. 중국인 관광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40.5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관광객수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132.6만명을 기록함. 뒤이어 러시아(36.7만), 캄보디아(33만), 대만(31.6만), 미국(30만) 순임. 특히 러시아는 전년 동기대비 194.5% 증가하며 방베 최다국가 3위권에 진입하였음.
- 지난 4월 16일 베-중 정상회담에서 `26-`27년을 베트남-중국 관광 협력의 해로 공식 지정, 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기로 함. 상품 가격과 방문 편의성에 민감한 현지 특성상 무비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국의 아웃바운드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봄 성수기 및 4월말~5월초 베트남 연휴에 따른 방한 베트남 관광객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고유가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항공 운항 변동성과 상품가격 상승이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로 연결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자료출처 : VNexpress, VOV, Inside VINA, Asean Express, Vietnam News Agency 등 베트남 뉴스 및 한국 뉴스 종합